(大正九年三月三日第三種郵便物認可) 大正十三年七月二十八日 (月曜日) THE DONG-A ILBO, (Oriental Daily News) SEOUL. 第一千四百三十號 (一)

# 東亞日報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編輯兼發行人 [illegible] 印刷人 [illegible]
定價 [illegible] 廣告料 [illegible]

## 賄賂의 肆行

一

日本歷代內閣의 政綱을 보면 官紀肅淸이 거의 議說的 科條가 되엿다 그런데 日本의 官紀는 여전히 頹亂하야 腐敗는 말하지 말고 內閣大臣부터 高級官吏가 常時에 疑獄에 連累하며 去後에 狼藉하야 새 政綱을 對할 것이 업게 된 事實이 한둘에 쓰치지 아니하나 初次山本內閣이 시멘쓰事件으로 因하야 倒壞하지 아니하엿든가 最近淸浦內閣이 辭任한지 얼마되지 못하야 子姓의 不正事件이 世人의 疑端을 일으키지 안는가 대개 肅淸으로써 政綱을 삼음은 이곳 濟亂한 過去를 表示함이니 肅淸이 繼統的 政綱이 되는 것을 보면 濟亂이 傳受的 事件이 됨은 의심할 것이 업다

二

지금부터 二百年以前만하야도 우리 朝鮮은 그리 큰 濟亂한 現狀이 업섯섯다 아모리 秕政이 만헛다 하나 賄賂는 禁物이라 이를 큰 羞耻로 알므로 犯하는 사람이 적엇섯다 세도가 생기며 이길이 차차 열리엇스나 그래도 體面에 矜情이 잇고 習尙에 顧忌가 남어서 큰 濟亂이 업섯는데 太皇帝朝에 閔某가 賣官하는 惡例를 만들고 當下라는 新規를 내여서 賄賂는 私藏을 도읍고 誅求는 公家에 모이게 되얏섯다 흐르는 물결이 갈수록 甚하야 커가는 濟亂도 後川한 자는 오히려 그의 矜惜과 顧忌가 잇섯슴을 聽하얏스니 一國을 震動하는 私藏을 보라 當時 濟亂狀態를 생각하고 남음이 잇지 아니하랴

三

이제 朝鮮總督府內 官紀를 살피어 보면 또한 肅淸할 必要가 잇는 것 갓다 日本의 內閣이 커갓거니 그의 技派를 물을 것이 아니요 또 우리 朝鮮의 末年人物이 그네의 議評을 바든지가 오래지 안흐니 淺近한 사람과 가치 엇지 그들의 議評을 그들에게 도로 보내랴마는 官紀가 肅淸하지 안흐면 그네의 몸을 點汚할 뿐 아니라 우리 民衆에 미치는 影響이 적다고 할 수가 업다 이 엇지 緘嘿하고 말 것이랴 一例를 들어 말하면 庶務部要任에 잇는 某가 全南富豪 金某에게 郡守採用을 預約하고 三萬圓을 바덧다는 말과 開城富豪 金某를 洋行할 때 同伴하야 旅費 二萬圓을 어덧다는 말과 晋州富豪 金某에게 參議運動費로 六萬圓을 바덧다는 말이 세상에 도라다니니 우리가 親見한 바 아니라 혹 風聞일는지 몰으나 이 일을 全部 否認할 證이 잇다 하면 엇지 人言이 이러하랴

四

現在 總督府官吏로도 自己의 內行을 檢勅하야 非義인 賄賂를 밧지 안는 사람이 업지 아니하나마는 대개 富豪를 優待하야 이로써 賄賂의 私謀를 通하라는 가릴 수 업는 事實이 쎄쎄로 一言에 오르니 官紀가 肅淸하다 하더라도 우리를 標準하지 안는 政治이라 우리로는 더 그에 對하야 不平이 아니지 안흐려든 하물며 賄賂가 行함이랴 賄賂는 富豪가 아니면 行使할 수가 업고 富豪는 [illegible] 民衆이 아니면 波削할 데가 업다 이는 오히려 大事가 아니라 우리 그네의 官紀問題를 들어 말하노니 그럼으로 無辜한 民衆의 苦痛은 告할 데가 업고 富豪의 橫함이 本末先後를 일흔 것이 아닐 수 업다 그러나 [illegible]

## 愛蘭公使承認 米政府의 對英回答

英國政府는 愛蘭自由國政府의 要求를 容하야 同政府와 交涉中이던바 今回 英國政府의 公表에 依하면 米國政府는 六月二十八日 駐米英國大使에게 書翰으로 英國政府의 要求를 承認한다고 하엿슴으로 愛蘭의 駐米公使가 正式으로 任命될 것도 不遠한 일이더라(東京電)

## 住民에撤退要求 伯國聯邦軍의宣言書撤布

伯剌西爾聯邦軍飛行機若干은 산파우로에 宣言書를 撒布하야 同地方住民에게 撤退하기를 懇願하엿는데 聯邦軍은 決戰을 遂할 決心이라고 하엿더라(바이스아일레스二十六日發)

## 米國民保護를要求

米國政府는 波斯政府에게 米國居留民의 襲擊及屈辱을 受치 안토록 充分保護의 方法을 講하라고 正式으로 要求하얏는데 이는 米國領事의 未亡人에 對하야 反對의 示威運動이 생긴 結果라더라(華盛頓二十六日發)

## 日人排斥은 K團분이아니다

「칼리포니아·홀프랜드」 日本人襲擊事件에 對하야 當地地方裁判所檢事 「의일」氏는 日本人排斥行爲는 「K、K、K」團員의 活動이라고 하는 說은 絶對 事實無根이라고 하엿더라(산타암차二十六日發)

## 亞細亞主義 實現前提

二十五日 「크로니클」紙는 長文의 社說을 揭하야 左와 如히 論하엿더라 日露日中新協約은 亞細亞人의 亞細亞主義를 不遠한 將來에 實現하라는 前提라고 思考된다(桑港二十五日發)

## 世界一週飛機 또出發하얏다

印度、中國、日本을 經由하야 世界一週飛行의 雄圖를 試하라는 飛行家가 또 잇는데 此는 亞利然丁飛行家 「잔니」少佐로 技手同伴 大型 「폿카」式 「나피어」機로 廿六日 出發하엿더라(암스텔담廿六日發)

## 饑饉風說 一掃에努力

共產黨中央執行委員會는 黨員에게 飢饉에 關한 虛僞의 風說을 傳播하야 恐慌狀態를 招한데 對하야 風說의 根源、並히 經濟的 不安을 一掃하기에 全力을 傾注하기로 하엿다더라(莫斯科電)

## 海港日人의恐慌 稅金過重으로

海蔘威在留日本人에 對하야 過重한 稅金을 課함으로 納稅에 困難하던바 七月二十一日 또 在留外人에게 對하야 最低十二留 最高七十留의 新稅金을 賦課하고 八月一日에 納稅할 事를 通告하엿슴으로 在留日本人은 大恐慌中이더라(敦賀電)

## 日露交涉全權은 카라한氏受任

露國外務省은 樺太問題에 關하야 「카라한」氏에게 委任한 事項을 言明하야 「카라한」氏는 樺太利權問題處置에 關하야 委任바더 合으로 彼는 이 問題交涉에 對하야 絶對로 全權을 [illegible] 莫斯科의 訓令을 待하야 回答을 遷延케 하지 안을 것이라고 생각지 안는다 云云(莫斯科二十五日)

## 商埠開所督促 日公使對外交部

山東協定에 依한 商埠地八個所를 開할 件은 中國側에서 今日까지 三個所를 開할 뿐이고 아직 實行치 아니함으로 日本公使館은 二十五日에 外交部에 督促通牒을 發하엿더라(北京二十五日發)

## 公使昇格 近近態度決定

中國과의 公使昇格問題에 就하야는 日本政府는 主義로는 無妨하나 列强과 同一한 步調를 取할지라도 英米各國의 意嚮을 徵한 바 公使昇格에 不贊成함으로 日本도 如何히 할가 考慮中인바 列國과의 協調를 破壞하는 것이 아니라 昇格與否는 近近 決定할 터이라더라(東京電)

## 三億削減은 實現困難

十四年度豫算의 歲出에 當然 增加될 것은 陸軍國防充實費、新規事業費、恩給、公債利子及手數料增加、地租稅增加 等으로 二千七百七十餘萬圓 增加이고 又 繰延不可能의 것이 約六億六百萬圓에 達하기 때문에 期待하는 바와 如한 三億圓의 削減은 困難하리라더라(東京電)

## 農省整理豫算 大削減編成中

農商務省所管大正十三年度 整理豫算은 十三年度追加豫算中 生絲檢查所新營費를 除하고 [illegible]

## 官吏淘汰는 明年度積極斷行

本年度支拂豫算改正에 際하야 當局은 俸給者에 對하야도 相當한 削減을 加할 豫定인데 人員淘汰의 手段에 對하야는 此에 伴하는 退職手當豫算이 必要할 뿐 아니라 萬若 此를 實行한다는 見解로 本年度는 [illegible] 官吏缺員의 補充을 하지 아니하야 不要額의 捻出을 圖하는 程度에 止하고 各省廳員의 大淘汰는 行政整理案이 決定된 後 大正十四年度에 行할 方針이더라(東京電)

## 土地收用認可는 地方廳에移權

政府는 能率增進問題에 對하야 目下調査硏究中이나 特히 事務簡捷을 要하는 民間出願에 依한 認可權과 如한 것은 法律命令等에 依하야 複雜하며 又는 土地收用과 如한 것은 總理大臣에게 認可權이 잇기 때문에 實際事情을 調査함에 不便하야 自然 認可를 遲延하게 되는 것임으로 如斯한 問題는 直接 그곳에 在한 地方廳에 權利를 移轉할 要가 잇서 急速히 實行하리라더라(東京電)

## 經濟會議廢止 行政整理의結果

帝國經濟會議는 政府의 行政整理 一部에 包含될 것임으로 廢止하기로 決定하엿는데 그 理由는 前內閣의 政策으로 設置된 것이며 內閣更迭과 共히 變更될 것이라(東京電)

一、其組織內容이 尨大하야 豫算은 二十餘萬圓임에도 不拘하고 實績이 不伴하는 憾이 잇다

一、議員人選上에 不備한 點이 잇는 것으로 政府는 最近 閣議에 報告하고 廢止勅令을 決定하야 月中에 發表할 터이라

## 日英通商條約 第八條失效發表

外務省에서는 日英通商航海條約 第八條及同附屬稅表를 大正十四年三月十日을 限하야 失效케 하는 趣旨의 七月十四日附 公文交換을 了하엿다고 二十六日 發表하엿더라(東京電)

## 地方長官會議 開議順序

地方長官會議는 八月四日에 召集하야 五日午前九時에 首相官邸로 參集하야 加藤首相의 訓示가 잇겟고 六七兩日 內務省에서 會議하야 若槻內相 濱口藏相의 訓示가 잇슬 豫定이오 其他各省에 對하야는 目下未定이라더라(東京電)

## 侈品增稅 各地에도適用

奢侈品輸入關稅에 關한 法律이 施行됨에 伴하야 朝鮮、臺灣、其他各地에 對하야도 適用하게 되겟는데 國民의 奢侈를 防遏하야 勤儉力行의 美風을 涵養함에 各地에도 本法을 適用하야 奢侈品의 輸入을 防止함이 必要하다 하야 [illegible] 公布가 遲延되리라더라(東京電)

法律公布期 = 奢侈品等輸入稅引上에 關한 法律公布는 二十八、九日中이라 하며 그와 同時에 施行區域에 關한 勅令이 公布되고 本法施行은 單히 日本뿐 아니라 朝鮮、臺灣、樺太에도 同樣 施行될 것이며 大藏省은 公布前에 詳細한 說明을 發表하야 本法의 內容을 널리 世上에 熟知케 할 생각이라더라(東京電)

## 關稅增徵과 各輸入品의影響 井上稅關課長談

奢侈品等의 輸入稅에 關한 法律은 近々 公布되는 同時에 朝鮮에도 施行된다는데 此等 關稅의 引上되는 物品中 朝鮮에 關係잇는 主要物品에 對하야 從來의 輸入額 新稅率比較及此의 影響等을 略하야 一般의 參考에 供코저 한다

一、麻織物 (細布、寒冷紗의 分) = [illegible] 從價稅의 것에 對하야는 約八倍、從價稅의 것에 對하야는 三倍餘에 相當할 것이다 [illegible]

一、毛織物類 本品은 主로 英國 [illegible] 大正十二年의 輸入額은 四、〇七六圓이 [illegible]

一、地氈 本品은 英國米國及中國에서 輸入되야 大正十二年 [illegible]

## 農務關係의要求 僅少한 通過如何

大正十四年度 總督府豫算編成은 [illegible]

一、農業經濟調査(約四萬圓)

二、穀物檢査 [illegible]

三、產業獎勵計劃(約六萬圓) [illegible]

## 日米國交의過去、現在、將來(七) 曹正煥

五、日米國交의將來

[illegible]

## 日本在米豫想 二千四十萬石

農商務省發表 七月一日現在 日本在米豫想額은 左와 如하더라

一、總數量 二〇、三九二、二六一石

一、內外鮮米別及所有者別

| | | |
|---|---|---|
| 日本米 | 生產者持 | 一六、〇九八、一二四石 |
| | 商人持 | 一、九五三、八三六石 |
| | 政府持 | 三四〇、二九二石 |
| | 計 | 一八、三九二、二五二石 |
| 朝鮮米 | 民間持 | 八一四、〇四〇石 |
| | 政府持 | 一〇、三五五石 |
| | 計 | 八二四、三九五石 |
| 臺灣米 | 民間持 | 六九、七四〇石 |
| | 政府持 | 七八六石 |
| | 計 | 七〇、五二六石 |
| 外國米 | 民間持 | 六〇八、〇二一石 |
| | 政府持 | 四九七、〇六八石 |
| | 計 | 一、一〇五、〇八九石 |
| 民間持米合計 | | 一九、五四三、七六一石 |
| 政府持米合計 | | 八四八、五〇一石 |

比前年稍減 = 前項農商務省發表在米高는 大正十二年에 比하야 約二百九十二萬石의 減少이더라

## 石炭需給概況 昨年中

燃料問題解決은 實로 緊急事項인바 特히 朝鮮에서는 朝鮮產業根本의 問題와 關聯하야 其自給策을 講함이 目下의 急務라 總督府에서 燃料選鑛硏究所를 創設하고 朝鮮炭의 性質 埋藏量의 調査及其經濟的 利用方法의 試驗硏究를 開始한 것도 此趣旨라고 한다

無煙炭의 [illegible]

朝鮮炭의 [illegible]

需給狀況 [illegible]

## 塔洞公園에關하야

◇公園은 疲勞한 市民의 心身을 [illegible]

[illegible]

## ◇東亞漫畫 投稿歡迎

돈 밧고, 총 밧고……

## 週末陣容

[illegible]

## 仁川日用物價 (七月十九日 仁川支局調)

[illegible]

## 橫說竪說

◇露義勇艦隊復活 露國義勇艦隊는 烏蘇里와 米國間에 航路를 開始하기로 하야 [illegible] 二隻을 就航식히엇더라(敦賀電)

◇日本에 잇는 米國宣敎師들은 排日問題發生以來、日本의 地方敎會가、金錢에、도리어 맛가 [illegible] 日本에는 地獄이 必要하다고 [illegible]

◇下岡氏新任披露宴에、 [illegible] 政治大家가 朝鮮에 와 [illegible] 東京에서 政務總監 [illegible] 起草中이라는 消息에는、 [illegible]

◇市內某新聞社長은、그 [illegible]

## ◇今日月曜欄休揭◇

## 穆淸殿修理所 發起人

開城郡所在 穆淸殿은 [illegible]

總幹事 李承鎬
庶務幹事 李鍾一 文
同 李秉先
會計幹事 李鍾雲
幹事 李周永
同 李敦李 [illegible]

謹告 [illegible]

◇注意 [illegible]

益々有望한 ▲新職業 [illegible]

新休美文 學生書翰 曾成高等普通學校教諭 黃義敦 朝鮮日報社記者 中鍊激 共著 定價壹圓 送料拾參錢 發行所 鴻文園

山林問題解決策(全) 總督府林野調查委員會調查係 林炳徹 著 定價二圓 送料十八錢

本人이 今般 左記場所에 法律事務所를 設置하고 民刑訴訟事務를 誠實히 取扱하오니 倍舊愛護하시옵 事務所 咸興郡咸興面 [illegible] 辯護士 申錫定

大學目藥

大學目藥은 [illegible]

參天堂合資會社 大阪市 [illegible]

# 一坪에 六十一石

## 섬칠일부터 열하로동안 한평에온비가 륙십일석

## 晴天은또二三日後에

지난십칠일부터 재작일 밤까지 만열흘동안을 밤이나낮이나한 경가치 흉흉한소리로 흉은소락 비로쉬지안코 나리든 장마비는 너무나염치가 업는지 재작일밤 열두시가너머서부터 먹장가튼 예구름을 모다 헤처바리고 작일에는 일은아츰부터 비록조각구름이 떠도라다니기는하엿지마는 그래도 청명한일긔로오래간만에 여름날의태양빗은 비개인뒤에 더욱새롭게 대디 진흙을 내려쪼이엿슴으로 시내삼십만주민들은 보다 깃분 우슴과 쾌활한긔상으로 마참일요일을 리용하야 이곳저곳으로 오고가게 되엿섯는데 측후소(測候所)의말을 들으면 아즉도 날은 확실히개이지아니하고 압흐로도 일이일간은 가는비가나리겟는지 모르겟다하며 지금현상으로는 이십팔일아츰까지 황하(黃河)어구에잇든 커다란저긔압(低氣壓)이 졈졈더커져 만주(滿洲)로 옴겨가서 지금 그것이 동북(東北)방면을향하고 진행중임으로 조선에는 그다지영향이 업슬터이나 아모리하여도

**북도디방** 은비가좀을보양이며 따라서 경긔디방도 가는비가 올모양이라는바 이번비는 해마다 이때면잇는장마비로 별로히 이러타할만한 특별한긔상(氣象)의 원인은업스나 북선디방이 데일만히왓스며 경성디방은 긔후변혈흘동안에 총우량이실로한평에륙십일석가량이라더라

…로부터 표착되엿섯스며 동오후 여덟시삼십분경에 마포(麻浦)면 차가도 일경의선 텬로선우에서 엇던사람두명이 물가운데 떠러커서 종적을감추엇슴으로 이금보를잇고 부근일대를 수색하엿스나 아즉 시톄를발견치못하엿다는데 이번수해는 모다강안일대에 이오 농작물은섭은흰답(田畓)이아닌고로비교뎍손해는 그다지만치안은 모양이나 이촌동(二村洞)과마포(麻浦)부근흰답의피해가사십오정보가량이되고 가격이삼천오백원 가량이라더라

### 錦江增水로 公州地方水害

#### 론산외에는 교통이두절하다

충청남도 공주(公州)디방은 지나간십구일부터 오는비가 매우 오래왓고 더욱이십일에는 칠십오밀리의오(五)가 오고 이십오일에는 칠십삼밀리의 오(五)가 와서 침수가옥(浸水家屋)이 백여호요 금강(錦江)의증수가 이십륙척이나 되엿고 이십칠일에는 교통이 두절되엿는데 론산(論山)만 자동차로통행되고 다른곳은 아즉도 개통되지안엇더라 (공주지국뎐보)

### 汶山, 長湍間 도보련락과 긔차발착시간

경의선문산(汶山)당단(長湍)간의 도보련락(徒步聯絡)을 취한다함은 임의보도한바어니와 경성당단간의 련락긔차시간은 아래와갓더라

| 京城發 | 長湍着 |
|---|---|
| 午前三,四〇 | 午前五,五〇 |
| 同 八,〇五 | 同 九,四〇 |

| 長湍發 | 京城着 |
|---|---|
| 午前九,一〇 | 午前二,一八 |
| 午後一,三五 | 午後三,〇一 |

### 開城市民은 아즉人心不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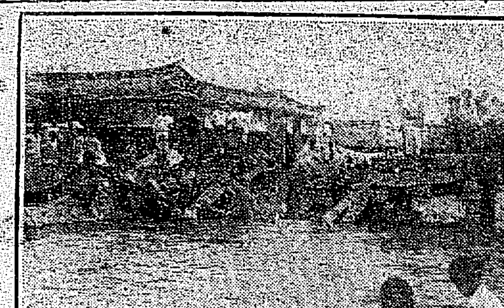
#### 조난민의대개는 지접할곳을어더

개성수재참상은본보에임의루루히보도하엿거니와 금월이십일밤의홍수와 이십삼일밤의 홍수를 맛난후에 벼벼로나리는비는 오히려 그칠가망이업서 극도로 불안상태에잇다하나다만한가지 조조하얏든 시민은 한모양으로 녁이는바는그외가치소란한중에도질서가 정연하야조금도 허둥대지아니하엿고이재는조난민도 데개는 안귀할곳을 어더고손해로가장 중요한것은 건축물의파괴와 전답의피해와 인삼묘포와 경식포(人蔘苗圃及定植圃)의손해인바 뎍확한조사를밥아 수자뎍표시(數字的表示)를틀기까지는오히려상당한시일을하 비할모양이더라(개성)

# 漢江減水

## 연강시민은 비로소안심한다

재작일오후 두시경부터 한강물은한시간에서너치식줄기를시작하야 작일오전열시에는 이십칠척사촌이엇스며상류가평(加平)괴려주(驪州)디방도모다십척이하로 감수되여 십칠척으로부터 석우척가량이되엿슴으로 이촌동(二村洞)등의시하야강안일대의 주민들은 놀라인가슴을거우가라안치엿다는데이물소동중 재작일오후 한시경에 한강철교밋헤는 사오쉬가량되여 보이는 조선사람어린녀자의시테가상류…



◇개성수해 ―우는돌다리도문허진 북부당교(北部堂橋) 아레는수해피난에도쳐마쓰고다니는송도부인―

# 定平交戰에 獨立軍一名被殺

## 『텬덕산』을에워싸고돌격중 경찰은군수품을압수햇다

함남뎡평군 주이면로동 리정선씨의집(咸南定平郡朱伊面老洞李植紱家)에 지나간이십일일아춤밀곱시경에 당종무자루와 륙혈포다섯자루를가진 독립군일곱명은 함흥군주서면(咸興郡朱西面)으로부터 와서 통고내외동포서(痛告內外同胞)한 겨서를 주고 현금이십원을바다가지고그뒤산인즉환희사(歡喜寺)압봉오리에서추격하는 함뎡군(咸定郡)경관대와략이십분동안나나싸왓스나필경은 독립군일명이피를흘렷고그외에 석명은 몸을감추엇슴으로 함뎡(咸定)량군경찰수사반략륙십여명은텬덕산(天德山)을에워싸고 나머지여섯명은모조리잡을결뎡이라하며 죽은시테는 맨몸뎡이로그자리에뭇고 군복과 모자와 총과텬막(天幕)일개와탄환 륙십오발 과현금 오원과 집신두커레와 소미(小米)두되(升)등을압수하야뎡경찰서에 갓다두고 쉬당은 승전긔념을 하려함인지 그모든물건을 압혜노코 사진을바앗다하며 죽은이의모자속에다 청년두자를 썻는테버서커서잘볼수업스나머리자는문(門)자안에무슨획이잇서민가인듯하며 아렛자는 종(鍾)인듯하며 내의(內衣)일건은 어느새에 입엇는지 모다석커젓스며 롱고서의내용은 텬시(天時)가 디리(地利)만못하고 디리가 인화(人和)만못하다 일본서는 쉬가지를일코 조선에서는 쉬가지를어덧다는 의미이며 싸운곳은 음버에서 이십오리쯤되는곳이라더라(뎡평)

# 平南에는 道路被害

…치아니하엿고 일반농작물의 피해도 만치안은모양이나 길과다리(道路,橋梁)등은 비로인하야 문허진곳이 만헛다 평원(平元)간 일등도로중에는 평남 일등도로중에는 룡강(龍岡)강서(江西)방면의 칠팔군데의 암거(暗渠)가 파손되엿고 그외에도 각커다리문허진곳이 만흔데 도토목과(道土木課)에서…

# 武器는 團結

## 형평운동은 다시살앗다

◇백뎡(白丁)이라는 특수부락(特殊部落)민들이 『우리도사람이니 다가치 자유롭게 살아지이다』고부르짓고 려난것이 곳형평운동(衡平運動)이엇스며 이와가치가튼경우의무리로 가튼 목뎍을가지고 경성과진주두곳에 난호아 서로 주일놈 살릴놈하고 온갖중상(中傷)과 질투시긔를일삼아 이룹갈며 대내대외로 싸와오든것도 형평다 참으로 그러타 이것이 거짓업는오늘까지의 형평사이엇스며 형평운동이엇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살앗다 이제야 참으로살앗다 오래동안 싸와오든그들은 서로자긔의 과실을 깨닷고 사당파뎍(私黨派的)의 온갖쟁투가 어느방면으로나 자톄(自體)의살길을죽이고 생명을축소식힘을 그들은이제야 깨달엇스며 늣기엿다 그리하야 마참내 지난이십삼일에양방위원들이 간담회를열고 흉금을 헤친후에 오즉통일(統一)을 목표하고 다만과거는모다과거로 영장할것을 서로쾌히선언하게되여 오는팔월십오일에 긴조선형평사원대회를 열것을결뎡하엿다한다

◇아! 이얼마나깃분소식이냐 주린자의밥이오 목마른자의새암이다 울타이제야살앗다 굿게굿게뭉쳐여라! 단결하여라! 오즉너의무긔는 단결뿐이라는것을 거듭하야말할뿐이다

# 晉州市民又大會

## 사범학교설립과 금융련합회를 속히짓게하고기타번영책으로

진주(晉州)의사활(死活)문제인 여러가지에대한시민의여론은또이러낫다이리면(裡面)에는대정십이년도디방비예산(地方費豫算)에 **사만원의** 금액을 계산하야도 평의회에통과하엿스며 또는그위치(位置)까지진주군진주면(晉州郡晉州面)사무소압헤잇는그전묘포(苗圃)에결뎡하야총독부(總督府)인가(認可)까지잇섯스나 금기예산은 조월(繰越)하여노은 모든데와 이밧게수년전부터 신축할 예산을세워서 위치까지 샤노은경상남도금융조합련합회사무소(慶尙南道金融組合聯合會事務所)도 이러니커러니 핑계를하면서 오늘까지 신축할문치도 뵈이지아니할뿐더러 이와반대로 대정십이년도 예산에계상하엿든 부산데이상업학교(釜山第二商業學校)수산학교(水産學校)와 및 밀양농잠학교(密陽農蠶學校)는 신축하야 임의 개교까지 하엿다 그러나 진주(晉州)는 이상의 두문데가 아직까지 아모진행함의사가 당국에 잇는것갓지안음으로 진주(晉州)시민은크게분개하야시민대회를 열기로하야 이달이십사일에 이에대한준비회를 열엇고 이십륙일에는오전여덟시부터청년회관에서 화포(花砲)의 터지는소리를 마추어서 각단데의위원회가잇섯고 이어서,각동리의 주민수천명은 농악(農樂)을 울리며 시위운동의행동을 지어가지고 시내를도랏스며 또는자동차로『선전비라』 수만장을 쎄린후 정오열두시부터는 다시화포소리를따라서 철시를하고 대회장인 청년회관에각단데는 물론일반시민 일천수백명이 모혀서 정번영회당(鄭繁榮會長)이 개회사를베푼후 의당으로 원전(原田)씨를 선거하고 사범학교(師範學校)와 및 금융조합련합회(金融組合聯合會)에관한 **경과보고** 를마친후 여러유지의 소감연설이잇고의사(議事)에들어가아래와가튼 사항을 만장일치로 가결한후 이실행위원열명은 번영회임원과가치 결의한일을 관철하기로하고 오후 일곱시에폐회하엿더라 (진주지국뎐보)

一, 晉州市民은慶尚南道師範學校校舍及慶尚南道金融組合聯合會事務所新築建成並道廳所在地인晉州의繁榮에關한諸問題의實現을期하기爲하야各當局에陳情委員을派遣할事

### 楚山에 殊常者

#### 밤을새여대경계

평북초산군읍내 (平北楚山郡邑內)에는 독립단이 침입한다는풍설이 십여일전부터잇서 오든바 이달십팔일 아츰에 엇던수상한 사람하나이 일본인암파상뎜(岩波商店)에서 만년필(萬年筆)네개를사가지고 어데로 도망하엿는데 이급보를들은 초산경찰서원일동은 총출동하야 각방면으로 수색하엿스나 잡지못하얏다는바 나이삼십쯤되고 머리깍고 베감투쓴사람이라하야 방금 새여가며 경계를하엿더라(초산)

### 楊州郡民과 佛人富來祥이 서로상지하는

#### 공사비청구소송

불란서사람(佛國人)으로시내봉래뎡(蓬萊町)일뎡목오번디에사는 부래상(富來祥)이는 양주군진건면배양리 (楊州郡眞乾面培養里)사는 강을용(姜乙用)외에 열아홉사람을 걸어 경성디방법원민사부에 팔백칠십원 구십팔전을 청구하는소송을 데긔하엿는데 그내용으로말하면 원고부래상이란자는 불란서사람인바 양주군진건면방면에 광대한토디를 소유하고잇는데 그부면에잇는 왕숙천(王宿川)과우구천(牛口川)의 두내가 해마다장마쌔면 넘치여서 수해(水害)를 적지안케바더오든중 대정십년경에 부래상이는 왕숙천과우구천부근의 디주들과 의론하고 자긔의비용으로 사천오백륙십여원을 드리여 데방공사(堤防工事)를 시작하야 그해안으로 준공하야 이래수해를 막지안엇는데 부래상의주장으로는 그쌔디주들과 의론할쌔에 공사비의반은 자긔가부담하고 남어지만은 각디주들이 그부근소유토디의 면적에 응하야 부담하기로 하엿다하야 권고하엿스나 그금액을 그가치 청구한것인데 권리피고들의 주장은 그쌔에 그러한의론에우리가한일도업고, 또자긔네의 토디는 데방에잇슴으로 그데방으로인하야 아모리의도 밧지안음으로 그청구에 응할수업다는것이라더라

# 拳銃携帶의 二青年

## 재녕경찰서에잡히엇다

지나간십삼일재녕경찰서(載寧警察署)에서는비밀리에활동을개시하야 해창방면에서 륙혈포를가지고온 조선청년두명을 톄포하고계속하야 활동중인데 동서에서는 사실을 비밀에부침으로 그자세한내용은 알수업더라 (재녕)

# 日夜不安

## 창성군인민

창성군에 독립단백명이상이 침입하며 대유동(大楡洞)부근에는 사십명가량이나 벽동과대유동경계에잇는 고개우에 머무름으로 인민들은밤이되면 금광굴로 피난하엿다가 날이새인후에야 집에도라오며 창산면댱(昌山面長)집에가서 면댱을잡어가지고 돈을내이라고하야 현금칠십오원을 바더가지고 도라갓다더라(창성)

# 今夜에 工業講演

## 오후여덜시반 텬도교당에서

조선의오늘날 현상은 여러가지방면으로모든것이 부족하고 모든것이담만갓지못할뿐만아니라 만일조선사람들이 새로운 각오를가지고 새로운 로력을하지아니하면 조선사람의생활은 파멸되고말것이다 이러한위급한 처디에잇슴으로 조선의 유식자들은여러방면으로조선사람의힘쓸바를지시하여오든터인데 그중에도조선의데일급선무가산업의발달이라함은세상이다인정하는바라 이러한의미로 산업의중추라할만한공업(工業)을발뎐식히고자 고려공업회(高麗工業會)의 공업선뎐강연단 (工業宣傳講演團)에서는 공업선뎐강연회를경성방직주식회사 (京城紡織株式會社)외 여러직조회사와 여러인쇄회사의 후원으로 금이십팔일(월요일) 오후여덟시반 부터 시내경운동 텬도교당안에서 열더이라는데 뜻잇는 인사는만히와서 듯기를바란다하며 연데와연사의씨명은아래와갓다더라

朝鮮과紡織工業 崔士烈

印刷와및그利用 白南斗

# 獨立黨大會

## 의정원이 국무원에건의안

림시의정원(臨時議政院)에서는 그간 수삭동안을두고 압길의햇쳐나갈일을 위하야 여러방면으로 연구하든중이엇는데 근일에 윤긔섭(尹琦燮)김상덕(金尙德)씨등 **이십인의** 의원(議員)의 데안으로써 독립당대표자를 모아압길에 관한것을 의론하라는 뜻으로써 본원은 독립운동에 민족뎍…

# 寧邊에 三名

## 군자금을모집

평북녕변디방에는 한달전부터 독립단의 잠입설이잇서서 동군…지못하고 지난이십이일에 부귀서하엿다하며 그리고 지난 십륙일 오후여덟시경에 당디룡산면요청동 김승권(龍山面耀城洞金承權)의집에 또각각두괴를… 권어복덕을 이루지못하고 리웃집 김승록(金承祿)의집에드러가 군자금사십원을 모집하여 가지고 드되여 종적을감초앗다는데 아…

# 碧潼郡에서도 集配人을威脅

## 고만두고독립단에들리라고

평북도벽동군벽동면 하서동…

### 아직침수 되여잇는 면적

…이구백륙십뎡보나 됨으로 농작물의썩어진 악착한손해가 십오만원이라하며 그동안 데방은 네개싸앗스나 그중에 농민한명은 축엇다 면민은대개 소작인이요 별로더바랄것이 업슴으로 살림을내여버리고 일하러 나오는사람이 작일까지 일백십인이나되는데 뒤를이어 부근의삼릉광산(三菱鑛山)으로향한다 면당이데방을다시쌋키를 명령하엿스나 추수의여망이 업는데 데방을다시쌋을필요가 업다고 듯지아니하며 이십사일이래 또증수되야 하호리면(下湖里面)은 큰바다와가치되얏다 침수가옥은 삼…

# 離散하는 罹災民

## 살림사리를다내버리고 사면으로리산하는백성

載寧에서 特派員金東進發電

황해도재녕강(載寧江)연안의재녕군일대는 뎐부침수되야 삼지강면(三支江面)상해리(上海里) 주민들은뎐부청룡리(靑龍里)이에피난하엿다가 재작일에 대개도라가고 농작물은 나흘동안이나물에잠기여잇든까닭에 **뎐멸이되** 여버리고 사백여명의 피난민들은 아즉것청거장부근에서 방황중이며 그중에 중국인한명은 탁류에 싸이여흘러가바리고교통은 겨우경편텰도를 케한외에는 뎐부두절되여그참혹한 현상은실로 말할수업는형편이며 남률면(南栗面)은 지난이십일 정오에 물이삼십척이나되여서 이천오백명의 피난민은 이십일새벽부터 다섯채의배로 해창리(海倉里)고잔리(古棧里)에 피난케되엿는데 배가부족하야 진남포로부터 긔선일척이 응원하엿고 데방(堤防)사십간은 밧갓편이 아즉수리되지못하엿는데 재작년보다도 한자가놉하 북률면(北栗面)의 손해는매우만코 침수정도도 재작년보다도놉하 삼십삼척에 달하엿스며 침수는만헛스나 피난을

**속히하기** 세문에사상자는업섯고 교통은 아즉통치못하나이십일오전에 그큰처동척창고(東拓倉庫)에 이천이백명 보통학교에 이천이백명 소학교에 이천일백명을 수용하고 좁쌀과소금으로 연명들을하는중인데 상…

### 먹고살길

이업기세문에 농민이곤하는 중이다 구조하기위하야 재녕면민이 팔백원을모와고안악군(安岳郡)에서는보리가루 삼십부대를보내고 도에서는삼천원을보냇다

# 朝鮮學生總聯合

## 경성에 발긔인준비회

요사이 경성에잇는 중등학교이상각전문학교 학생중 몃사람피 디방으로도 평양의 숭실대학생들이 모혀서 압흐로우리 육위시하야 각 중학생들까지도 학생계의 사상운동발하는 동시에지식을 서로교환하며 친목을도아우리의 목뎍을 다하자는의미로조선학생총련합발긔인준비회(朝鮮學生總聯合發起準備會)를조직하고 임의발긔인된사람중에는멀리동경(東京)에류학하는사람도몃사람이잇스며 제경학생중에도 사오인이 잇다는데 일일히통지는 발송치못하나 누구든지 이에공명하는 학생은 면ㅣ미국이나 중국과만 면유불론하고 발긔인 되겟다는 동지서를 경성부와룡동(京城府臥龍洞)뤼십팔번디로 보내라하며 지금 상무집행위원은 김동양(金東洋)뎡재철(鄭在喆)박충모(朴忠模)상순이라더라

# 朝銀大阪支店 萬圓紛失

## 지뎜당은경찰서에수사청원

일본대판시 금고(大阪市今橋)오뎡목에잇는 조선은행대판지뎜(朝鮮銀行大阪支店)에서는지나간이십구일 아츰열시경에 출납계(出納係)에잇는 천뎐우일랑(淺田宇一郎)이가 금고(金庫)의현금을 조사하든중 만원뭉치와 한개즉 만원이 분실되여잇슴으로 깜작놀라 중서(中西)지뎜댱에게 보고하엿스나 영업데철시간에 다시 계산하여 보앗스나 역시부족됨으로 선후데하야 경찰서(警察署)에 계출하야 수사하여주기를 원하엿다는데 이 …

# 不平

## 웬욕설이요

(不平投書歡迎)

…원은에종로 동양의복뎜(東洋衣服店)에서는…이상지가되여서고만두고 와서 그곳점원은가는 사람들…부르다가 금기『상투쟁이』…이니『하고요새지하니 이러…원의 버리쟁이가 어티잇소 (연동생)

### 오해시지요

장사가 그리한행동을할리가잇슬닛가 아마무슨오해가 아니신지요(동양의복점주인답)

### ◇휴지통

▲동정스러운 경칭 거지말잘하기로 이름잇는 경성측후소에서는▲최후의 유긔를 내여『인케는쾌청하리라』하더니 파연 작일은해가쨍쨍나서 고든 미움햇다가 오후부터나리는 비빌에 그만코가납작▲지루한 장마에 휘구두름못신다가『인케야 세월을맛낫다』 고새로볼칠까지 하여신고 나섯든어른들도 코가납작▲오래동안 류리잔만 어른만지면서 놉흔을출출흘리든 빙수장사들도 돈푼이나 착실히벌드시덤비다가 코가납작▲여러날룩여두엇던빨래를말리노라고 분주하든 행랑어멈도 코가납작▲다리만남득지게』에주린배를 걸고잇든 지게군도 덩거장으로나가다가 코가납작……▲어느 코가더납작할는지는 몰으거니와이글다쐬노흔뒤에해가쨍쨍 게나되면『휴지통자』의코도납작

### 運動界

#### 學友庭球軍 京城에서解散

혀편에싸다…

### 龍江有志의美擧

### 勞働學院講演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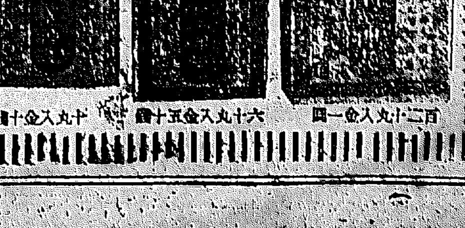
庭球用具 蹴球用具 野球用具

定價表 無料進呈 地方注文 大歡迎

蹴球 라켓트 軟球라켓트

朝鮮運動具商會 京城府 仁寺洞 振替京城二〇二五 八番

天一靈神丸 련일명신한



天一靈神丸 服用하시오 上策이올시다

分賣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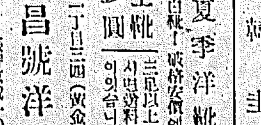
京城府樂園洞一九七番地 天一藥房 趙高藥木家

株券紛失廣告

平安貿易株式會社 株主 金仁貞

最良한原料와 新技術 中央蜂蜜園 釀造部 京城府 鍾路二丁目

京城種苗園 京城鍾路四丁目 主 李用植 主務 韓圭鎭



青年紳士用 夏季洋靴는 太昌號洋靴店 京城南大門通一丁目

染料原料專賣 京城花園町九七 東華洋行

# LA DONG-A ILEO.

SIGULO, KOREUJO, LUNDO, JULIO. 28. 1924.

RAKONTO PRI LA STELOJ.

II

La Argenta Riverego aŭ Lakta vojo, en kiu por ĉiam sin trovis La ondaro kantanta kaj dancanta, ne estis transirebla kaj krome por iri kaj reveni ĝin preniĝis multe da tempo.

Nun [illegible] aŭ nevole devis esti disiĝitaj ĉe unu kontraŭ flanko de la divita riverego Kenu, rememorante ĝojegajn vivojn de la pasintaj tagoj kaj ĝeminte sian maldolĉan sorton, pasigis vane kaj sencele la tempon poŝtinte ŝafojn kiel la puna devigo, kaj ĉe la alia kontraŭflanko de la sama maro Jikne, kalkulante la permesitan intervidan tagon kaj plorante pro la malfeliĉa amo sidis sur la teksilo por elteksi teksajon kiel la puna devigo.

Dum la horo venis kaj foriris, jen noktiĝis, jen tagiĝis; formalaperis unu monato kaj alvenis la alia. Kaj finfine alvenis la tago permesita kaj atendita, kiel korĝojegaj estis ili, eĉ pensinte ĝin!

Estas strange, ke en la sepa tago de la sepa monato ĉiuj korvoj suprenflugis al la Argenta Riverego de la Ĉielo konstrui novan ponton per la kapoj, ke la paŝtisto kompatiema kaj la teksistino malfeliĉa povu transiri la Argentan Riveregon por ilia longesopirita intervido. Kaj plue estas strange, ke fakte en tiu tago oni tre malofte povis trovi korvon sur la tero. Vere la korvoj devis senti pezon, kiam la du gekaruloj transiris la riveregon sur la kappontoj de la korvoj.

Sed por ili la permesita intervido estis tro mallonga kaj malĝoja por esprimi longelongajn sopiritajn korojn, ĉar nur unu nokton dum la tuta jaro. Se oni trovus pluvon aŭ pluveton en la sepa vespero, tiam oni kutime kredis, ke ĝi estas la larmogutoj falitaj el kvar okuloj de la gesopirantoj en Ĉielo. Kiam tagiĝis la oka kaj paliĝis ĉiuj aliaj steloj ĉe ambaŭflankoj de la Lakta vojo, oni povis trovi plipaliĝegajn du stelojn, Ve, kiel malĝojegaj estis iliaj disiroj kaj amrakontoj malfeliĉaj!

Tamen ili kun kortiremaj bedaŭroj devis atendi la duan unu nokton de la venonta jaro.

에쓰페란토欄

두 별 의 情 話

## 樓上洞 白虎亭址

【正解者】樓上洞一六五 趙汝正

◇녜날에 가장 유명하든 병정과 활이 지금 반착은 아닙니다 ◇그런에 사뎡주인은 「활량」들이 엇습니다 활량이란 군인의 무관 하도와 비슷한 것이니 사뎡을 구식 사격장(射擊場)이라고 할 수 잇슬 듯 합니다 하여튼지 활량이 업는 세상에 사뎡이 잇서 무엇합니다 지금도 활쏘는 이들은 더러 잇스나 이것은 운동으로 소일로 쏘는 것이니 그 전 활량 늘 커렴 무기(武技)를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녜날에 가장 유력하든 병정과 활이 지금 일도 아니 되니 녜일을 미루어 지금도 지금 활진 라 갈박게 아니 되는 국공법이 매포한 방만 못하나는 매포도 지금 활지 세가 되는 날이 잇슬 것입니다 발서 살인광선이니 무엇이니 발명되얏다는 것을 들으면 그날이 그리 멀지도 안흘 것 갓습니다 그날이 오면 오늘날 통산 병장 가튼 이 루각 골백호뎡 터 가치 쓸쓸하게 될 것입니다

숨니다 락산 청룡뎡 터, 새문안 황학뎡 터에 활시위 소리가 끈허진 뒤에도 이 백호뎡 터에는 각금 가다가 관혁에 살 맛는 소리와 지화자 소리가 석거 들렷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위우에 섯는 소나무에 바람 소리가 돌 뿐입니다

## 二百洞町名物記事 내동리名物

## 社稷洞 社稷壇

【正解者】社稷洞一二五 崔衡鎭

◇우리 조선 태조(太祖)께서 즉위(卽位)하신 이듬해에 도읍을 한양(漢陽)에 뎡하시고 또 그 이듬해에 사직(社稷)을 세우고 춘추로 제향을 지내게 하엿습니다 오늘날 와서 지도 사직이라 하는 동리 일흠은 여긔서 생긴 것입니다 ◇사직의 의미로 말하면 사(社)는 주(主位)로는 각각 석주(石主)를 뫼섯는데 동편에 잇는 것이 사(社)라 하고 후토씨(后土氏)로 배위(配位)를 삼고 서편에 잇는 것이 직(稷)이라 하는 것이니 후직씨(后稷氏)로 배위를 삼엇답니다 각 고을에 잇는 사직 단에는 석주도 업습니다 ◇어사직의 의의 사로는 자미 잇는 이야기 거리될 만한 것이 업습니다 그러나 자미 업는 것이나마 하려면 선조(宣祖)께 향제를 치내라고 관원 이 들어가보니 후직씨 위패 가 업서졋더랍니다 갑작이 차질 수도 업고 다시 맨들 수도 업서서 허위(虛位)에 향을 지내고 뒤에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부려서 차자 보니 위패가 사직서(社稷署) 관원 중 한 사람이 수복이 가지고 나가서 못된 짓을 하려고 해본 결과 엇던 나무 밋혜 무더 두엇던 것을 차저 내엇답니다 그 수복은 극형으로 죽엇다 합니다 이 야기는 이것 뿐이고 그만 끗칩니다

## 中央版

## 母子慘死

### 仁川의 水害 비교뎍 적어

인천 부내에는 이 번 장마에 각 디 참해에 비하면 그리 큰 피해는 업섯스나 불행히 재판소압 굴혼 언덕이 문허져 모자(母子) 두 사람의 생명을 빼앗긴 일이 잇섯고 그 외에는 예년 장마에 비하야 심한 정도는 아니 엇스며 그 대강은 아래와 갓다고 一, 신뎡(新町) 도산뎡(桃山町) 부도뎡(敷島町)의 저지대 가옥이 각각 약간식 침수가 되고 一, 산근뎡(山根町) 송판뎡(松坂町)에 약간의 평가량의 길이 문허졋고 一, 축현정거장 압헤다 치엇집이 마루아래까지 침수 一, 그 외에 재판소 압 언덕이 문허저서 한 집이 묻히고 두 집이 상하엿스며 또 하수도가 넘고 담이 문허진 곳이 약간 잇섯슴뎐 (인천)

## 仁川歌劇은今日

인천 소년회(仁川少年會) 주최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두 지국 후원으로 소년 동화극(少年童話劇)에 회를 지난 이십 사일에 하려다가 사정에 의하야 이 십 팔일로 연긔하엿다 함은 임의 보도하엿거니와 그 날도 마츰 우편 인으로 부득이 연긔하엿더니 여러 가지 준비도 다 마치엇슴으로 금야 오후 팔시 반부터 빈뎡가무기좌(濱町歌舞伎座)에서 개최 할 터인데 오래 기다리든 관중에게 만원의 성황을 리필할 터이라고 가급뎍 일즉이 임하심이 편리 하리라고 (인천)

## 永化增築起工

인천 사립 영화 학교(永化學校)는 금 월 이 버로 한다고 축 문데 에 대하야 그 학교 관계자 들이 아니라 각 방면에서 마련 하여와 한다 하음 루차 보도한 바 이 니와 그 간 기부 금도 예산 액에 삼분이 (三分二) 이상에 달하엿고 데 이학 긔부터 증축 교실을 사용하려면 불가불 속히 공사에 착수 할 필요가 잇슴으로 그 간 경영의 모 건축 업자와 계약을 데결하엿슴으로 이 달 안으로 공사에 착수 하게 되 엿슴을 더러 예산의 부족 한 것은 계속하야 긔부금 청구를 하며 한편으로는 미수금 수합에 분망하다고 (인천)

## 纛島水害後聞

[illegible]

## 河東郡 大水災

### ◇版外消息◇

浸水二百餘戶

慶南河東郡에는 去十二三日頃 부터 險晴이 無常하야 連日細雨가 그치지 안터니 同二十二日午前부 터 雨勢가 漸々暴注하야 二十三日 午前七時부터 蟾津江 橫川江이 溢溢하기 시작하다가 同日午後九時에 至하야는 增水量이 突然 二十七尺 以上에 達하야 河東邑內 市場全部가 浸水되며 前坪廣野의 農作은 一望無際의 濁浪으로 化하야 市內 戶가 沈沒되고 附近各洞의 二百餘戶가 浸水되며 大騷動이 이러낫스며 及附近各洞은 大騷動이 이러낫스며 이 現狀을 본 河東無産者相助會 救濟部에서는 即時會員 全部가 出動하야 一般浸水家屋에 對하야 什物의 運搬 人畜의 救濟에 奮鬪하 엿스며 其次에 河東靑年會 河東勞農會 河東商務會 朝鮮時代本社 三新聞支局의 發起로 臨時水災救濟團을 組織하야 濁浪中에서 死力을 다하야 奮鬪하는 中에 河東警察署 及消防組員 一同과 河東郡廳及河東面職員 一同은 艱難하야 救濟에 活動을 開始하야 浸水된 六十餘戶에 對하야는 夕飯을 供饋하고 一方으로는 船隻을 準備하야 家具什物을 運搬하엿슴으로 人畜의 死傷은 無하나 爲先 發見된 家屋이 三戶요 浸水家屋이 槪算으로 二百餘戶 以上에 達하엿는데 同日午後九時半 부터 水勢는 減退하기 시작하야 翌 二十四日午後一時頃에 至하야는 僅히 人家附近의 地帶는 完全히 退 水되엿스나 降雨는 更히 繼續하야 一般人心은 매우 恐慌中에 잇서 官民共同의 救護團은 繼續警戒 中이요 被害程度는 아즉 確實한 調査는 無하나 農作物과 家屋 及 其他

## 水原畜産功勞者表彰

●水原畜産功勞者表彰 水原郡畜産同業組合에서는 去二十六日午前十一時三十分에 同組合事務所新築落成式을 兼하야 水原畜産功勞者 第一回表彰式이 잇섯는데 建物 三十二坪 五合 工事費 三千五百二十八圓八十錢으로 되엿다는 工事報告와 時實 秋穗 道知事告辭와 京畿道畜産聯合會長 佐藤七太郞 祝辭와 來賓 水原勸業模範場長 大工原銀太郞 組合長 近藤虎之助 等의 祝辭가 잇슨 후 同組合員 答辭가 잇고 畜産功勞者表彰이 잇슨 後 閉會되엿는데 受賞者는 如左

水原家畜組合 台章面 勸善里 朴 健 裕

安龍面 古索里 金 要 淡

同 長芝里 權 郁 周

(水原)

## 公州地方水害

浸水家屋百餘戶 交通은 大槪連絡

忠南公州地方에는 去十七日부터 降雨가 시작되여 二十日 以後로 浸水家屋은 百餘戶에 이르럿스나 別로 히 큰 損害는 업섯고 公州를 起點으로 하야 各方面의 交通과 自働車로 往復은 多少 道路의 破壞와 浸水 關係로 不通되는 個所가 잇스나 步行의 通行은 自由롭고 錦江의 增水는 二十五日午後二時 外 지 二十二尺四寸 五分인 關係로 公州 鳥致院 間交通은 錦江 兩岸에 自動車를 配置하고 乘客과 郵便物을 船隻으로 連絡하는 中이며 公州 大田間은 中路인 馬岩里의 浸水로 不通中이며 公州 禮山間은 中間 銅川橋의 流失로 不通되고 公州 論山間은 通行中이라 하며 農作物의 損害는 아직 未詳하다고 (公州)

## 全北移秧狀況

二十六七日頃에 全部完了가 될 듯

全北地方은 今番 豪雨가 나림으로 부터 農家에서는 晝夜를 不拘하고 移秧에 盡力하는 中인데 當局의 調査는 아즉 완지 못하엿스나 今月 二十六七日頃에는 全部完了 될 듯하다 하며 그 동안 가물로 못자리에 비가 온 후 모가 나고모의 不足으 로 困難이 업게 되은 萬幸이라고 (全州)

## 豊山小作會員

相互扶助의 熱誠

慶北安東郡 豊山小作人會에서는 小作爭議로 因하야 幹部 會員 여러 사람이 檢事局에 拘禁되엿다 함은 屢次 報道하엿거니와 會員 中에는 共同으로 품을 팔아 가지고 그 돈으로 그 사람의 집에 부탁한 쉬라도 차입식혀 달나고 同會幹部에게 付託하엿다는데 詳細는 아래와 갓다고 (安東)

豊山面 安郊洞 權三植 外三十八人 六圓

同面上里洞 山亭部落 四圓八十錢

## 全鮮庭球延期

八月九十日로

大邱運動協會主催 時代日報支局 東亞日報支局 後援으로 七月二十六七兩日間 大邱에서 開催될 全朝鮮 第三回 青年 第一回少年 庭球大會는 맛츰 水害를 내인 暴雨로 말미암아 來八月九十兩日間으로 延期하엿다고 (大邱)

## 扶安井邑間 郵便配達中絶

二十四日 豪雨로

扶安郡 白山面 八旺里 近處는 井邑 郡 龍北面 等地 外 지 의 道路는 暴雨로 因하야 去二十四日에는 郵便 配達夫의 交通이 끈치고 同郡 幸安面 三千里 東津面 方面은 地上으로 約 三尺이나 물이 넘칫는데 浸水家屋과 流失物은 別無하다고 (扶安)

## 鳳山有志活動

水害救濟에 對하야

鳳山郡 有志 諸氏는 去二十日 水害를 當한 貧民을 救急할 目的으로 去二十四日 午後十時 當地 公立普通學校 內에서 相議한 結果 小米 五十石을 被害地로 送致케 되엿다고 (沙里院)

## 鎭南浦救護班

北栗面을 向하야 出發

黃海道 載寧郡 北栗面과 南栗面이 洪水에 浸沒되엿다는 急報가 黃海 平南道知事로부터 電達되엿슴으로 鎭南浦府 警察署 及 商業會議所 에서는 聯合救護班을 組織하야 지난 二十一日 午前九時 警備丸과 同十時 稅關 艇 動 船 二 隻으로 北栗面을 向하야 出發하엿다고 (鎭南浦)

## 堂上燕雀

岸曙 譯述 (70)

니되아가 아바세스의 소리를 들으면 이 권부터 무섭든 생각이 배나되야 암만 하야도 함께 가고 십지안앗다 쫄리아의 말을 다 행니 녀겨 니되아는 목욕간으로 들어와서 두사람이 돌아오기만 기달엿다 시간은 왜 지내 간모양이 명다 니되아는 울칭한 방안에 안커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혼자 하고 잇는 때에 가비야운 발자최 소리가 들리기에 돌아다 본즉 쫄리아가 들아와 섯다

『잘되엿다 지금 돌아온다 무서운 굴 안이 드러 니되아야 집으로 돌아가자』

자룸다고 니되아에게 쫄리아가 무섭은 굴이야기와 죽엄가은 경쟁이의 얼골을 다 말한 뒤에

『해도 약을 어더 왓스니 깃부다 그 놈은 이 의 말이 먹으면 분명히 효험이 잇다고 하드라 이 것만 먹이면 글로커스는 내게 반할 것이다 아이 아이 온 의 꽁 좀 보자』

니되아는 부르지젓다 『몸이 권에는 그이가 아니라고 사모햇다만은 나는 정말 글로커스를 햇다만은 지금 나는 너를 밋고 말 한 다 만은』

니되아는 생각에 괴로워 하다 쫄리아가 아이 온 의 손에서 글로커스를 쎄아 슐 제 쥐을 듯고 자긔 가 도와 주 엇 다 만 은 사랑스런 운글로커스는 아이온의 손에서 쫄리아의 손으로 가게 되고 그 의 손에는 올 수 가 업슴을 생각하면 가 슴이 막히는 것 갓 햇 다

두 사람은 무사히 다 이오 멧드 집으로 가서 쫄리아의 방안으로 들어갓다 밤참(夜食)이 두 사람을 아오기를 기달 녓 다

『니되아야 술 좀 안 마시깃늬 칠 지 안 으 냐 오 늘 밤은 칩기도 하드다 열 시 것 갓 구 나』

쫄리아는 조곰도 부 서 리 운 빗도 업시 술을 부어 한 입에 들어 마 시 엇 다

『아씨 흉리는 약을 가지 셧 슴 닛 가』 하며 니되아는 녀 저 도 좀 만 져 봄 시 다 그 병은 얼 마 나 적 습 닛 가 약 빗이 엇 덧 슴 닛 가』

『수정가치 맑 습 되 다』 하며 쫄리아는 집어 주며 『비슷한 물과 쪽 갓 다 고 하 더 라 분량은 얼마 나 되 여 도 효 험 은 대단하다고 하 니 이 것 을 무 엇 에 든 지 타 서 먹 이 면 글 로 커 스 에 게 곳 효 험 이 잇 슬 것 이 다』

『그럼 보기에는 이 물과 쪽 갓 슴 닛 가』

『자 보렴 이 모양으로 빗이나며 맑다 곱기도 하다 달빗에 빗나는 이슬에서 만든 것 갓 다』

『마 개 는 무 슨 마 개 입 닛 가』

『희고 맑아 조곰도 냄새가 나지만는 수 몰가 병 마 개 하 나 한 이 다 』 하 나 맛도 업고 냄새도 업는 것이 그 러케 효험이 잇는 것은 이상한걸』

『먹으면 곳 효험이 생 긴 가요』

『보통은 그러 한데 사람에 딸 라 서 시간 지 내 야 효험이 생 기 기 도 한 다 고 하 더 라』

『냄새가 조 키 도 합 니 다』 하며 니되아는 데 병 의 마 개 를 열 고 향 수 병 을 집 어 손 에 들 면 서 뿌 맛 게 이 런 말 을 하 엿 다

『냄새가 그 러 케 조 흐 니 그 병 에 는 조 곰 비 싼 보 석 이 부 듯 다 어 케 네 가 팔 고 루 을 음 데 업 다 고 해 스 니 이 병 을 줄 까』

『아씨의 얼골을 볼 수 업는 제 에 게 는 이 런 향 수 를 주 시 면 아 씨 를 생 각 하 게 됨 니 다』

『그럼 주마 집 어 가 거 라』

니되아는 고맙다고 하며 절 하 고 병 을 품 에 너 혓 다

『한데 그 약은 누구가 쓰든지 가 치 효험이 잇 슴 닛 가 요』

『그거야 그러코 말고 그 약 을 먹 이 기 만 하 면 글로커스는 그 녀 자 만 어 엽 부 게 생 각 한 단 다』

쫄리아는 술을 먹고 긔 색 이 조 와 서 큰 소리로 웃는다 쓸 데 업는 잔소리를 한다 하 며 밤 이 더 단 히 깁 혓 습 녀 야 지 자 지 아 니 하 엿 다 밝 아 올 녀 가 되 야 종 을 불 러 옷 을 벗 기 고 자 리 에 누 을 때 에

『이 귀한 약을 숨 녀 가 오 기 까 지 는 내 가 꼭 가 지 고 잇 겟 다 버 개 아 레 에 두 면 조 흔 꿈 을 꾸 게 되 겟 지』 하 면 서 약 을 벼 개 아 래 에 너 허 두 엇 다

## 質疑應答

一、質疑는 日常生活에 關係잇는 事에 限함
一、應答은 總히 本欄으로 써 發表함
一、質疑는 姓名을 記入하야 必히 朱書로「質疑係」라 明記함을 要함

【問】本人에 父母는 別世하엿슴니다 父親 生時에 甲이라 하는 이의 게 有價物을 借用하야 典執 하엿든 後 逐히 別世하엿슴니다 其後 民籍上으로 보면 女子 四人 뿐만 나마 잇슴니 다 그러하오면 有價物主人 即甲이 死亡者의 長女에게 債務를 請求할 權利가 잇슴니가 (金生)

【答】法律으로는 死亡者의 相續 人이 누구인지 알 수 업거니와 如何間 債權者는 死亡者의 相續人에게 對하야 請求할 權利가 有합니다 (辯護士 金炳魯氏談)

【問】甲이 四年前에 甲의 土地所 有權을 乙에게 保管하고 金額을 借 用하엿다가 期間이 經過토록 該金 을 返償치 못하야 該土地를 乙에게 賣渡하고 本坪所有權의 記載된 日錄 坪數대로 移轉登記手續을 하여 주 엇슴니다 乙이 또 該土地를 丙에게 賣渡하고 本坪數대로 移轉登記手 續을 하여 주엇슴니다 그런데 甲의 墳墓가 有한 林野約千坪 未滿地가 其土地接隣地에 在합니다 今에 丙 이 地籍圖를 閱覽하여 보고 該林野 가 本土地에 包含測量이 되엿슨즉 該林野도 丙의 所有라고 主張하며 甲이 分割을 請求하여도 丙은 不應 하오니 엇지하면 일허버리지 안켓 슴닛가 甲으로부터 乙, 乙로부터 丙 外지 其林野를 賣渡에 編入한다 는 말은 업섯슴니다 甲은 其林野를 別番으로 有한 줄 思하엿더니 今에 地籍圖를 본즉 實로 包含인 듯하고 別番으로 記載된 것은 업슴니다 (海州 一問生)

【答】土地査定時에 該林野가 土 地와 共히 甲의 名義로 査定되엿스면 아니라 甲이 乙에게 賣渡한 土地 中에 包含치 아니 하엿슬 진대 甲은 丙에 게 對하야 分割手續하라고 請求할 權利가 有합니다 (辯護士 李榮榮氏談)

## ◇天氣豫報 曇驟雨

溫度 昨日最高 七九、二 昨日正午 八二、七 昨年最高 八六、三 (?) 濕度 [illegible]

## 中央版

◇나부로박람회 [illegible]


◎當七月二十七日부터 ◎우리코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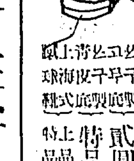
外社作品 스크린마가치 全一卷
外社作品 深夜의 騎手 全二卷
外社作品 罪 의 길 全二卷
外社作品 피가건둥ㅣ자 全二卷
三回連續 亞弗利加探險 三十六卷中 四卷上映
第一回 新拳鬪王 全十六卷中 第二編 四卷上映
特約 團成社 電話光九五九

家庭副業 特約取次販賣本店 大阪九條中通四丁目 電話西一二七七 友榮會

岡田福田両博士証明 神經衰弱絶好の良劑
ネ ー ベ ル
健腦強精の革新劑
ビロンソン博士推賞

살결을 고르게 美麗케 하는 クラブ 洗粉 구라부

中等科講義錄
會長 侯爵 朴泳孝閣下
會員大募集
發行所 京城旭町一ノ二一 朝鮮 斯文學會 振替口座 京城 一一九二番

自靴

紳士靑年愛用 夏期自短靴特價大提供(十文十一文各種具備)
製靴 武圓貳拾錢 特品 四圓 特上品 八七圓
京城鍾路二丁目 永興德商店
地方注文代金引換

斯界革命 品質本位 堅牢美廉 本所特長
仁字고무工業所
大邱府南山町一丁目三二 主任 朴齊元

ホシチヤーコール錠 호시지야ㅣ고ㅣ루
定價 五十錢
더운 때 음과 胃腸의 注意
너름이 왓다 더웁다 섭이나는 故로
飮料水를 함부로 먹고
泄瀉를 한다
마음놋 하고
便所에 가면 後重하다
이러한 때에는
호시지야ㅣ고ㅣ루 錠을
服用하시오
만듯이 잇침니다
다만 이러한 대 설 하 나 니라
胃腸中에 잇는 분 것을 吸收하야
大小便으로 보내서 胃腸을 奇麗히 掃除합니다

資本金五千萬圓 東京 星製藥株式會社 大峽


ClibPDF - www.fastio.com

## 米豆週觀

▲雨天으로終始一貫한今週의各地場面은特殊한步調는업섯스나 [illegible]

外지高案을示하고▲六圓關門을頻數히進退하다가五圓八十六錢에止하니步幅은一百二十四丁을張하엿고全週始終의差는七十四 [illegible] 려維持하면서二圓五十二錢에終하게되니▲總步幅이一百七十丁에週初週末價格의差는九十七丁으로反 [illegible] 比하면約三十錢假量이

그러면그場面과步調도尋常치아니하리라하니그强弱觀은大槪엇더할가日本으로말하면部分的으로는旱氣를感하나槪括하면週

論할지라도下落로 [illegible] 도下勢리라함이收派 [illegible] 그反面으로는日本의 [illegible] 稍高한 [illegible]

三南은旱災로多大한殺收를 [illegible] 는同時水害가그뒤를니엇는즉 [illegible] 確한統計는모르되적지안은被害는明若觀火라하며▲또이 [illegible]

[illegible] 라하야上勢를推測함은硬派의意見이다來週의場面은果然엇더한便의進展에傾하려는고?

資 便 買 價
(二)二六〇〇　(五)一九二〇〇 石
三八〇〇　八〇〇〇　二〇〇〇

正租上每斤 [illegible]
大豆 龍山每石 [illegible]
長湍同 [illegible]
小豆 [illegible]

[illegible]

# 腸　TAKA～DIASTASE　タカヂアスターゼ　다가디아스타ー제　胃

## 專賣特許 強力消化素

故高峰博士가다가디아스타ー제를發見한지이미二十有星霜, 이동안에我治療醫學上에如何히多大한變動을보게되엿는지, 前에는輕忽한學者는本品을對함에冷笑로써한일도잇섯스나, 只今은世界到處에本品의需要가업는곳이업고, 그最強力인澱粉消化의偉效는, 本品을重要不可缺할常備藥이되게함에至하다, 그리하야輓近獨逸醫界에서本品을研究하는學者가不少하야, 디되어但只澱粉消化素만아니라사람이나或은動物의膵液中에存在한거의全部의消化酵素를包含하야, 그힘은사람의膵液에百倍나되는것이發見되야, 益々消化素로의聲價를發揚함에至하얏다。

## 醫界와다가디아스타ー제

如何히優秀한지는다음諸大家의批判이證明함

**醫學博士 男爵 北里柴三郎先生曰**
다가디아스타ー케는나의病院에서患者에게實驗한바에依하면澱粉消化藥으로極히有效하며, 조금도有害한影響을及하는일이업고, 服用하기에不快한臭味가업고, 또한少量으로著效잇슴으로써매우實用할만한것으로信함。이라고

**醫學博士 井上善次郎先生曰**
胃腸障害는往々疾病誘發의根元이되고, 또疾病治癒의回復을遲鈍케하며, 따라서胃腸障害中澱粉의不消化에原因되는것이甚多하고, 特히米飯을常食으로하는日本人에게는더욱그러하나, 此를救濟함에는完全한消化藥이잇슴을要하는데, 此目的에對하야予는高峯博士가發見한다가디아스타ー케를試用하야好果를엇고, 此種製劑中最優良의것으로確信함。

**故 醫學博士 谷口長雄先生曰**
澱粉不消化病의徵候는여러가지나, 胃의擴大, 疼痛, 飽飫, 腸內瓦斯蓄積, 便秘, 前頭部疼痛及泄瀉等이不充分함으로, 筋肉及腦力을喪失함이恒例인데, 以上의症候에는다가디아스타ー케를服用하면快速히治癒할것이다。云々

**故 醫學博士 栗本東明先生曰**
予의經驗에依하야特히다가디아스타ー케의有効를感하기는, 結核患者의消化障害의境遇이니, 予는此種類의患者에게接할때마다다가디아스타ー케를投與하야, 늘滿足한結果를엇는中이다。

## 다가디아스타ー제의特長

### 效力不變
醫學博士 湯川玄洋先生曰 디아스타ー케는 製造後時日을經過한것은그效力을失한다는말을듯고 予는此를數種의디아스타ー케에對하야試驗한바, 果然該한것은製造後三週日만經過하야도澱粉에對하야그作用을하지못하야, 全然히無效한것이잇스나, 다가디아스타ー케는永久히그效力을失하는일이업다, 이것이予가特히本品을重視하는바이다,

### 强度一定
醫學博士 西崎弘太郎先生曰 다가디아스타ー케는購求의時日과場所를달니할지라도 그糖化의效力은勿論구리고ー케의效力도 또한늘一定한것은如上의實驗에依하야알것이라, 라고 (東京化學會雜誌所載다가디아스타ー케及麴의澱粉糖化素에對한研究의一節)

### 效力强大
故醫學博士長與稱吉先生曰 予가 監理하는胃腸病院實驗室에서市場에서販賣하는數種의디아스타ー케를 化學的及實驗的으로比較試驗을施行한結果, 澱粉消化劑로다가디아스타ー케를除한外에는 하나도藥品으로볼만한價値잇는것이업고 또價格의點으로보드래도 다가디아스타ー케와比較할만한價値를算出키不得함, 云々 (日本消化機病學會例會講演의一節)

이케아予는此實驗에基하야다가디아스타ー케가結核患者의消化障害에對한著効를確認함과同時에此種의患者에게向할때마다, 이것을服用하도록勸告하는바이다, 云々

**故 醫學博士 柴山五郎作先生曰**
現今結核療法에, 結核菌製劑或은其免疫血淸以外에結核에對한特効藥은無함에따라서結核에對한藥劑療法은, 一般衛生食餌的療法과如히病體의生理的抵抗力을强大케함에不過하나換言하면患者의食慾을亢進케하며消化吸收를佳良케하야써一般營養을增進케함을主治로함(中略)故로結核患者의營養을良好케함은結核菌에對한細胞의抵抗을크게하고, 結核菌을撲滅하야所謂治療의意義가잇는것이다(中略)故로結核患者의消化障害食慾不振等은治療上決코等閑에附치못할바니라。

◆高峰博士가發見한다가디아스타ー케는澱粉消化作用의큰것과오래그効力을變치아니하는것으로特히日本과가튼澱粉質을主食으로하는곳에서는結核治療上極히緊要한藥品인것은如上의理由에依하야明確하다。고

**醫學博士 佐多愛彦先生曰**
다가디아스타ー케는數年以來肺結核患者의消化補給劑로使用하야有効함을認定한바이라。고

◇內外醫家實驗報告無代進呈◇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出張所 大阪濱路町堺筋 臺北市表町

---

## 土에親하는

사람들의淸快한健康이여

壯者도피로운더위에
아조健康하게
長成하는愛兒는언제든지
滋養의精라구도ー겐
을親하고잇슴니다

湯水만잇스면바라는것이됨니다

決코腐敗치아는粉末純乳

# ラクトーゲン (라크도ー겐)

近來類似品과模倣品이만히出現하오니注意하시오

全國有名藥店食料品店에잇소

乾卯食料品株式會社

---

高等美術日本朝鮮支那式 總護謨靴製造元卸

## 조선에서데일질진고무신

朝鮮木浦府竹洞六番地
(川) 고무商會
振替京城一二五四四番
主 川本藏
營業所 支店 神戶市御幸通五丁目五六ノ三 朝鮮湖南線里里驛前

---

## ●樂器와運動具

ピアノ 風琴 明笛 ハモニカ 蓄音器 レコード ヴアイオリン マンドリン 樂隊器各種
京城本町壹丁目
野球用具 庭球用具 蹴球用具
◇カタログ無代進呈
直輸入元 セヤマ樂器店 振替京城一〇七五六 電話(本)二六五二番
京城本町壹丁目四十九番地 セヤマ運動具製作所 私書函京城五番 電話(本)一四七九番

---

生徒大募集●自動車運轉手養成二ヶ月卒業●學費低廉●成功者多數
## 京城自動車講習所
自動車界益々有望利益多●規則送呈●京城府黃金町三丁目

---

美味 滋養 葡萄酒

# 赤玉ポートワイン

포ー트와인

朝夕一杯　百藥보다勝함

赤玉葡萄酒는 體力 補血 興奮劑의效力이가장顯著하고 一般由來上不可缺할滋養料로서今春醫師에對用되야益々滋效를醫界에認識되는中이오더욱이고特別醬造法으로自然의美味를가진醱酵를保有케한特長이엇슴으로男婦人小兒의게도適當하고北寒暑를막는精力을補하는效力에至하야는決코他의追從를不許함니다